

대한민국 스포츠 기록과 감동을 한자리에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 10. 15. 올림픽공원에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 개관, 스포츠유산 거점 공간 조성
- 관련 자료 7만여 점 공개, '임무 수행 도장 찍기' 등 국민 참여 행사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대표 하형주, 이하 공단)과 함께 10월 15일(목), 올림픽공원(서울 송파구) 내에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인 '국립스포츠박물관(관장 김충배)'을 개관한다. 최휘영 장관은 개관식 현장을 찾아 체육·문화계 주요 인사, 스포츠유산 기증자 등 약 150명과 함께 박물관 개관을 축하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내외 흩어진 스포츠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한편, 이를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해 스포츠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한 스포츠유산 거점 공간이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록'을 국민의 기억으로 보존,
우리 스포츠의 도전과 환희를 담은 자료 약 7만 점 수집·소장

스포츠의 순간은 기록과 점수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했던 장면과 기억으로 남는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규모로 조성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은 다양한 스포츠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스포츠의 도전과 성취, 국민이 함께 환호했던 순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카페 및 로비, 2~3층에는 상설전시관, 4층에는 옥상 정원, 지하 1~2층에는 스포츠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수장고 등을 갖췄다. 이와 함께 기존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새로 단장해 어린이박물관, 스포츠 전문도서관, 교육·체험 공간 등을 마련, 전시 관람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의 역사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현재 약 7만 점의 스포츠 관련 자료를 수집·소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와 발전 과정, 국민이 함께한 주요한 순간들을 다양한 유물과 기록을 통해 소개한다. 주요 전시 자료로는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서윤복 선수가 획득한 우승 메달과 ▲한국 축구의 개척자 김용식 선수의 축구화,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의 경기복, ▲1988 서울올림픽 성화봉과 개회식 굴렁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국민 200여 명이 주요 전시물을 찾아 임무를 수행하는 도장 찍기 행사(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나의 기록 카드’, ‘명장면 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해 국민과 함께 개관의 의미를 나눈다.

스포츠유산에 담긴 도전과 감동을 국민,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는 선수들이 세운 기록뿐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 응원하고 환호했던 국민 모두의 기억”이라며, “국립스포츠 박물관이 소중한 스포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속에 담긴 도전과 감동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책임자	팀장	이광구 (044-203-2791)
		담당자	사무관	함효비 (044-203-3147)
담당 부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박물관팀	책임자	관장	김충배 (02-410-1390)
		담당자	팀장	김여진 (02-410-1902)

